

# 중동 사태 장기화... 동네 대중목욕탕도 '노심초사'

# 광주 서구에서 20년째 목욕탕을 운영 중인 조씨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 19' 시기도 잘 버텼지만 최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터진 중동전쟁 여파로 전기·가스비 요금 급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약 1652㎡(500평)의 목욕탕에서 나오는 전기·가스 요금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800여만원이었다. 2월 전기·가스요금 예상비용이 23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면 생계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시기도 이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 요금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월매출을 2500여만원이 된다하더라도 전기·가스비, 세금 등을 내고 나면 200만~300만원 정도 남는다. 인건비도 못 버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 고물가에 전기·가스비 급등 우려 '엷친 데 겹친 격' 손님 끊길까 이용 요금 못 올려... 폐업도 쉽지 않아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산 원유, 가스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목욕탕 소상공인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강경 발언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의 시·도별 공중위생영양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광주·전남지역 목욕탕업(대중목욕탕·사우나·찜질방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574개소(광주 169개소·전남 405개소), 2024년 568개소(광주 164개소·전남 404개소), 지난해 567개소(광주 161개소·전남 406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목욕탕업은 지난 2003년 이후 23년째 감소하는 중이다. 2001년 1만98곳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주거 환경 개선과 일상 습관 변화로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코로나19를 겪은 후 해마다 100곳이 넘는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목욕탕은 5688곳뿐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사태로 전기·가스비가 급등하면서 전기·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9% 오르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중동전쟁 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추후 중동발 주요 원료 수입에 문제가 지속된다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약 70% 이상을, LNG의 2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광산구에서 24시간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씨는 최근 이용 요금을 올릴까 고민하고 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상승하는 가운데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부담이 되지만 이용 요금을 올리면 남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길 거 같은 걱정이 크다. 또 시설 특성상 1억~2억원 상당의 철거비가 들자 폐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씨는 "난방비 단가가 최근 들어

30% 수준 올랐다. 이용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시설 운영이 힘들다"면서 "비용을 올리거나 그나마 시설을 찾던 손님들까지 끊길 거 같아 걱정이"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중목욕탕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유류세 인하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상용 경제학 박사는 "목욕탕은 위생 여건이 열악한 약자들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로 일종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요소의 유류세를 인하여 주는 것처럼 목욕탕을 위한 세수 혜택 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전남부터 자원이 보외기종을 원유는 경제 단계, 천연가스는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윤용성 기자 yoy1040@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나선다

### 기본계획 수립 위한 설명회·통합 컨설팅 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공간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수립 주체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난개발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동시에 청년 창업과 재생에너지 등 기회의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간 관리를 위해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확산을 이끌고 있다. 김인중 사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원천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과 소통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정책 협의의 일환으로 '소통마루' 출범식을 개최했다.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 광주노동청, 4개소 대상

노동당국이 해빙기를 맞아 지난 약화에 따른 건설현장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최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봉암서원 화차체험장 건설공사 현장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함께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건설장비 운행이 지속되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추락 등 재래형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특히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고장을 부착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계고장을 확대 제작해 안내판으로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비계 통로 위 적치 자재 정리와 안전 통로 확보, 목재 톱밥 등 인화성 물질 제거를 통한 화재 예방,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모와 좌석 안전띠 착용, 방수 콘센트 교체 및 접지 관리 강화 등이 지도됐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로또 3 28 31 32 42 45**

**로또 1등 18명...당첨금 각 17억1000만원**

제121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28, 31, 32,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7억144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42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889명으로 17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0만819명이다. 연합뉴스

## 전남 농수산물 수출 증가세... '가공식품' 전환

### 김 비중 절반 육박...음료·면류, 수출 확대 이끌어

전남 농수산물 수출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바꾸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통적인 원물 중심 수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 체질 개선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전남도는 올 들어 2월 말 현재까지 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이 1억 3373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3.4%)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수출 증가세는 김과 가공식품 수출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이 6500만 달러로 9.3%

늘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농산가공품은 3251만 달러로 60.0% 증가했으며, 특히 음료(82.0%), 면류(215.4%)가 크게 늘면서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수산물도 전복(7.1%), 미역(78.4%) 수출 증가로 전체 10.0% 늘었다. 관역별로는 아세안 수출은 다소 줄었으나,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수출이 48.1%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 회원모집 안내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 특 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 지정회원 위임시 70%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액형 / 1일 1회)
VVIP (B형)	700		- 회원일일, 무기명 1매, 골프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1회 4인, 1일 기준 / 월 5회 소액형 / 1일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액형/1일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액형 / 1일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액형 / 1일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syyoon1@happinssc.co.kr

### • 골프호텔 객실



- 2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HAPPINESS COUNTRY CLUB**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